

비관세장벽 모니터링(중동/두바이지사)

I

수입제도 변경사항 / 수출현안 및 동향 (2023.07)

1. 변경사항

○ 사우디 식약청 (SFDA), 아스파탐 첨가 식품 안전성 발표

가) 배경 및 내용

- 아스파탐 인공감미료는 설탕의 200배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로 1974년, 미국 FDA의 공식 승인으로 식품에 첨가하기 시작하였으며, 하루 1일 40미리(1키로당) 이하 섭취를 권장하며 다양한 국가에서 음료, 디저트, 의약품 등을 제조하는데 사용되었음.
- 사우디는 2019년, 국민의 건강 개선 및 비만을 줄이기 위해 인공감미료가 포함된 모든 음료에 설탕세(Sugar Tax)를 부과하는 등 설탕이 함유된 스낵이나 탄산음료, 에너지 드링크 등 칼로리가 높은 식품 소비에 민감한 편으로, 아스파탐이 첨가된 식품 수요가 높은 국가임.
- 세계보건기구(WHO) 산하 국제암연구소(IARC)가 7월 14일, 설탕 대체용으로 사용되는 아스파탐(Aspartame)을 발암 가능 물질(2B군)로 규정함에 따라 사우디를 포함한 각국의 소비자 및 판매자들이 혼란을 겪으며 논란이 됨.

나) 발표 내용

- 사우디 식약청은 IARC 발표 이후, 기존에 연구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 내용을 면밀히 조사하였으며, 아스파탐 성분이 들어간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공식 발표하였음.
- 사우디 식약청은 지난 수년간 연구했던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아스파탐 함량 식품은 인체에 무해하며, 시장에 판매되는 제로음료 기준으로 1일 9-14캔 이상 섭취를 하지 않는다면 안전하다는 입장을 표명함.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, IARC 발표 이후, 국제식량농업기구/세계보건기구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가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함에 따라 현행 사용 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발표함.

2. 시사점

- 그동안 아스파탐의 유해성과 안정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IARC의 공식 발표로 인해 명확한 성분과 발암물질 분류에 따라 구매자들은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소비를 할 수 있게 되었음. IARC의 발표 이후, 미국 식약청(FDA)를 포함 각국 식품 및 관련 기관들은 공식 발표를 통해 아스파탐 첨가 식품에 대한 안전 적합성을 발표하였고, 일부 국가들은 오히려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.
- 아스파탐이 첨가된 제로슈가 식품은 사우디 현지 건강식 및 다이어트 식품 수요에 따라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, 한국 식품 또한 많은 국내 업체들이 수출을 하고 있거나 수출 준비 중에 있음. 아스파탐 관련 스낵과 제로 음료 등 한국 식품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우디 식약청 발표에 따른 현지 시장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수출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.

*출 처 :

<https://theconversation.com/who-expert-cancer-group-states-that-the-sweetener-aspartame-is-a-possible-carcinogen-but-evidence-is-limited-6-questions-answered-209957>

<https://saudigazette.com.sa/article/634224/SAUDI-ARABIA/There-are-no-concerns-about-aspartame-Saudi-FDA-confirms>

<https://www.sfda.gov.sa/en>

<https://www.arabnews.com/node/2337536/food-health>